

한국에서의 대학도서관 연구동향

A Trend of Research Topics on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이혜영 (HeyYoung Rhee)*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함이 목적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문헌정보학 4개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발표된 대학도서관 주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총 1,023건 중 대학도서관 연구(332건, 32.5%)가 공공도서관 연구(418건, 40.9%)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대학도서관 연구의 관심주제는 '도서관 경영'(95건, 28.6%), '정보학'(76건, 22.9%), '도서관 서비스'(31건, 9.3%)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연구에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질문지 조사(112건, 33.7%), 사례조사(40건, 12.0%), 면접조사 50건(15.1%) 그리고 기타 방법(132건, 39.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연구의 학제별 연구 대상으로는 4년제 대학교도서관이 244건(73.5%), 2년제 대학도서관(6건, 1.8%) 그리고 기타 대학도서관이(82건, 24.7%)로 조사되었다.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는 1인 연구는 교수(136건, 41%), 사서(35건, 10.5%), 강사(14건, 4.2%) 순으로,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교수/사서(53건, 16%), 교수/대학원생(27건, 8.1%), 교수/교수(19건, 5.7%) 순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 trend of research topics on university library.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tudy, under the theme of university library, published on four academic society journals, related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2000 to 2014, such 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total 1,023 researches, the research on university library was performed (332 researches, 32.5%), next to the research on public library (418 researches, 40.9%) in frequency. The concernment themes of university library research were 'management of library' (95 researches, 28.6%), 'information science' (76 researches, 22.9%), 'library service' (31 researches, 9.3%) in order. Major research methods applied to university library research were questionnaire investigation (112 researches, 33.7%), case investigation (40 researches, 12.0%), interview investigation (50 researches, 15.1%), and other methods (132 researches, 39.8%) in order. The objects, classified with academic system, on university library research, were four year university library 244 researches (73.5%), two year university library (6 researches, 1.8%), and other university library (82 researches, 24.7%). The researcher dispersion was, in the case of one person research, professor (136 researches, 41%), librarian (35 researchers, 10.5%), and lecturer (14 researches, 4.2%) in order. In the case of group researches, the research dispersion was professor /librarian (53 researches, 16%), professor/ graduate school student (27 researches, 8.1%), and professor/professor (19 researches, 5.7%) in order.

키워드: 대학도서관, 연구동향, 내용분석, 연구 관심주제, 연구방법, 학제별 연구대상, 연구자별 분포
university library, research tendency, content analysis, concernment theme,
research method, academic system, researcher dispersion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onju@dongduk.ac.kr)

■ 논문접수일자: 2015년 5월 27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5월 27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6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32(2), 153-165,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2.15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에서의 문헌정보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문헌정보학 교육, 한국도서관협회의 다양한 도서관 사업,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사서교육 그리고 학계와 현장의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유형별 도서관을 다루고 있는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학 및 학제간의 이론적 연구와 함께 이를 다양한 도서관에 적용시킴으로써 학문 및 현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학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학문의 전당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 협의회, 사서커뮤니티, 사서들의 연구발표 등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 대상의 연구 활동은-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크게 이론소개를 통해 이를 대학도서관에 적용시키는 방안 제시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경영, 이용자, 서비스 등의 사례·질문·면접 조사를 통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론연구와 현장연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의 연구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두 가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학문 및 현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꾸준한 이론 및 학설연구를 통해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연구와 현장연구가 대학도서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서도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문헌정보학의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대학도서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모든 도서관 유형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정재영, 박진희, 2011)와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의 발표논문(김용근, 2003)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이 모두는 도서관 현장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학도서관 대상의 이론 및 현장 연구동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 대상의 연구동향을 통해 대학도서관 관련 관심 주제와 연구방법, 학제별 대학도서관 대상 그리고 연구자별 분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주요 4개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논문 중 대학도서관과 관련 있는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 수집 과정은, 우선 논문명에 '대학도서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논문

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다음으로 논문명에는 ‘대학도서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차, 초록 및 내용을 통해 대학도서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도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논문의 주제분석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오세훈, 2005)를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에 있어 2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거나 2개 이상의 유형별 도서관을 다룬 경우에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 및 도서관으로 분류하였다.

1.3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건수와 관심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연구문제2. 대학도서관 연구에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3. 대학도서관 연구의 학제별 연구 대상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4.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를 알아본다.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수 있다. 즉,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대학도서관 조직, 경영, 공간, 전산화 및 시스템, 수서, 정리, 목록 업무 등을 각각 별개의

주제로 한 연구들이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일부 동향만을 다룬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장덕현, 2002), 대학도서관기준의 동향분석과 개정안 연구(윤희운, 2011), 대학도서관 경형개혁의 동향과 반추(윤희운, 2001), 대학도서관 편목업무 외주의 동향과 논쟁(윤정옥, 2004) 등이다.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연구한 논문 즉, 대학도서관 연구동향에 관한 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인숙(1995)은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성과의 국내 도서관 봉사 발전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연구자들이 앞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근거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실무자 중심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있어서 이용도가 높은 연구논문은 “문헌정보학의 보편적 사실을 밝힌 논문(총 464건 중 196건, 42.2%)”이며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도서관이 부닥치고 있는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문(172건, 37.1%)”, “외국에서 발표된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의 한국적 응용을 시도한 글(89건, 19.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문헌정보학의 보편적 사실을 밝힌 논문(총 464건 중 196건, 42.2%)”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이 부닥치고 있는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문(172건, 37.1%)”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전체적 순위와 비교했을 때 순위가 바뀌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서들에게 있어 외

국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으로 이것은 일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이 외국 문헌정보학 이론을 추적하고 검증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한국 도서관 현장의 문제들을 소홀히 하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용근(2003)은 대학도서관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통해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 및 사립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매체를 통하여 보고되는 현장 사서들의 연구논문과 이들 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은 어떤 부문의 업무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제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주제영역은 총 331건 중 대학도서관 경영(33.0%, 109건), 정보시스템(22.6%, 75건), 문헌정보학 일반(16.3%, 54건), 자료조직(10.9%, 36건), 참고정보서비스(10.6%, 5건), 정보처리(5.7%, 19건), 서지학(0.9%, 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영과 박진희(2011)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간 문헌정보학 관련 4개의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2,166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현장연구의 현황 즉, 양적 변화, 연구자, 주제, 도서관 유형별, 연구비 지원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논문 중 현장연구는 31.9%(691편)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현장연구의 주제를 도서관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공공도서관 35.6%(246편), 대학도서관 34.4%(238편), 학교도서관 20.4%(141편) 그리고 기타 9.6%(66편)로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이 중 대학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주제구분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운영 37.8%(90편), 정보봉사 20.6%(49편),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17.6%(42편), 이용자 교육 10.1%(24편), 장서개발 5.5%(13편), 전문적성 3.4%(8편), 자료조직 2.5%(13편), 저작권 2.1%(5편), 기타 0.4%(1편)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3개의 연구가 대학도서관의 연구동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도 아니고 대학도서관에 중점을 둔 논문도 아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연구라 볼 수 있다. 즉, 도서관 현장연구¹⁾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중에서도 학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학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므로 위의 선행연구들과 그 차이가 있다.

3. 연구 설계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대학도서관

1) 상계논문에서 정재영, 박진희는 “현장연구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즉, 구체적인 도서관 유형을 명시하고, 도서관 현상을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도서관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대학도서관과 관련 있는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 수집 과정은, 우선 논문명에 '대학도서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논문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다음으로 논문명에는 '대학도서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차, 초록 및 내용을 통해 대학도서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도 수집하였다. 논문의 주제분석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주제 연구 총수이다. 이것은 4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대학도서관을 주제로 한 논문의 총수를 의미한다.

둘째, 대학도서관 연구 주제별분석이다. 이것은 대학도서관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의 세부 주제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방법이다. 이것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들 중 어떠한 연구방법들이 대학도서관 주제로 발표된 논문에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넷째, 대학도서관 학제별 연구 대상이다. 이것은 2년제 대학의 대학도서관과 4년제 대학의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 건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이다. 이것은 학계에 있는 연구자(교수, 강사, 대

학원생 등)와 현장에 있는 사서 그리고 공동연구로 발표된 연구 건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으로 이것은 이미 밝혀진 내용을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량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내용분석의 특징은 기록된 내용에 한정되어야 하고, 객관성의 특성으로서 분석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계성의 특성으로서는 문헌의 내용을 시종일관 같은 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목을 설정하는 것이며 계량화의 특성으로서 분석의 범주에 나타나는 정도를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4개 주요 학회지라는 게재지의 범주와 이에 발표된 논문 중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범주 그리고 '대학도서관'이라는 대상의 범주가 정해져 있으며 문헌정보학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유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분석들을 수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조사 및 분석

4.1 대학도서관 주제 연구 총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4개 학회지에 발표된 대학도서관 주제 연구 건수를 유형별 도서관 주제 연구 건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1>을 제시한다.

국내 대학도서관 연구는 전체 연구 건수 1,023건 중 332건(32.5%)을 차지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표 1〉 유형별 도서관과 비교한 대학도서관 연도별 연구 건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대학	20	21	20	18	21	21	25	28	23	20	24	25	23	28	15	332	32.5
국가	0	1	0	2	2	1	5	1	6	7	5	4	4	2	7	47	4.6
공공	11	15	19	17	16	20	24	26	36	38	38	38	40	36	44	418	40.9
학교	4	6	7	18	8	9	8	16	8	16	7	10	14	8	9	148	14.5
전문	0	4	5	3	4	5	5	2	3	2	3	3	1	5	4	49	4.8
특수	2	0	1	1	2	1	0	0	0	1	1	0	1	1	1	12	1.2
기타	0	0	0	1	3	1	1	0	1	2	0	1	0	3	4	17	1.7
합계	37	47	52	60	56	58	68	73	77	86	78	81	83	83	84	1,023	100

대학도서관 연구는 2000년부터 꾸준한 건수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보아 연구자들의 대학도서관 관심은 큰 흐름을 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2014년도에는 다른 년도에 비해 연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때에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관심의 연장으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 프로그램 개발, 모바일 접근성, 직무 분석 등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순위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본 연구의 조사는 정재영, 박진희(2011)가 발표한 논문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4.2 대학도서관 연구 주제별분석

다음 〈표 2〉는 대학도서관 연구 주제를 나타낸 것이다. 논문의 주제별 구분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오세훈, 2005)를 참조하였다. 표에서는 문헌정보학 영역만을 제시하였으며 표 아래에 좀 더 상세한 하위주제 및 세부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대학도서관 연구 주제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영역은 총 332건 중 95건(28.6%)인 ‘도서관 경영’이며 다음으로는 ‘정보학’이 87건(26.2%), ‘도서관 서비스’가 76건(22.9%), ‘문헌정보학 기초’

〈표 2〉 대학도서관 연구 주제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문헌정보학 기초	1		1	3	2	2	5	4	3	2	1	5		2		31	9.3
도서관 건물 및 설비							1			1			3		1	6	1.8
도서관 체제			2		2	1	1	3	2	2	4		1	1	2	21	6.3
도서관 경영	7	10	7	5	6	5	6	10	9	4	4	7	2	6	7	95	28.6
도서관 서비스	4	4	2	5	5	4	7	6	5	6	8	6	4	6	4	76	22.9
자료조직				1	3	1		1	1			1	1	3		12	3.6
정보학	7	5	8	4	3	7	5	4	3	5	7	6	12	10	1	87	26.2
서지학																	
출판																	
기록관리학	1	2				1										4	1.2
합계	20	21	20	18	21	21	25	28	23	20	24	25	23	28	15	332	100

31건(9.3%), '도서관 체제' 21건(6.3%), '자료 조직' 12건(3.6%), '도서관 건물 및 설비' 6건(1.8%) 그리고 '기록관리학' 4건(1.2%) 순이다.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서관 경영', '정보학', '도서관 서비스'의 순위는 정재영, 박진희(2011)의 논문 그리고 김용근(2003)의 논문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전자는 대학도서관 대상의 현장연구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도서관 운영', '정보봉사',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이용자교육', '장서개발', '전문직성'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분석하였다. 후자는 대학도서관 현장 중심의 기관지 및 발표논문²⁾ 총 331건을 분석한 것으로 현장 사서들의 논문 및 발표에서도 '도서관 운영', '정보시스템', '문헌정보학 일반', '자료조직' 순으로 연구가 진행됨으로 이 역시 도서관 경영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전자와 후자 논문 그리고 본 연구 조사 결과, 그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서관 경영', '정보학', '도서관 서비스'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즉,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론과 현장을 모두 다룬 연구 그리고 현장만을 다룬 연구 모두가 위 2가지~3가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 경영', '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정보학'의 연구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대상 '서지학'과 '출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출판'에 있어 '전자출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도서관 대상 전자출판 연구는 4개 학회지에서

는 발견할 수 없었고 4개 학회지 이외 학술지에 일부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4개 학회지 조사 대상 논문에서는 '전자출판'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보다는 '정보학' 중 '학술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일부로 다루고 있었다.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하위주제 및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기초'에서는 '도서관법/저작권법', '사서직'에 관한 연구, '도서관 체제'에서는 '도서관 및 정보정책', '도서관 협동/자원공유'에 관한 연구, '도서관 경영'에서는 '경영 기법/전략', '도서관 기획/활성화', '도서관 평가', '장서개발/정책', '장서관리 일반', '조직일반', '조직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홍보/마케팅' 연구, '도서관 서비스'에서는 '정보서비스 일반',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연구, '정보학'에서는 '학술커뮤니케이션', '이용연구 일반', '이용자 인식/요구', '정보이용행태', '웹사이트 비교/평가', '웹사이트 설계/구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점점 연구영역이 감소하고 있는 '자료조직'에서는 '메타데이터', '온라인열람용 목록', '편목일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분류(도서기호, 인터넷자원 분류 예외)', '서지통정', '주제분석' 그리고 '편목' 중 'MARC, 고서편목'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 중 '도서관 경영'에서의 '경영 기법/전략', '도서관 평가', '장서관리 일반', '도서관 서비스'에서의 '정보서비스 일반',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그리고 '정보학'에서의 '이용연구 일반', '이용자 인식/요구', '정보이용행태'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2) 국립대학도서관보, 사대도협회지, 사대도협 세미나 자료, 워크숍 자료.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주제는 2005년부터 ‘정보문해론’이라는 영역이 국내에서 이슈화 되면서 기존 대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교육에 정보리터러시를 함께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이 증가하면서 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 교육 및 정보리터러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직의 교육 및 전문성에 관한 세부주제도 ‘문헌정보학 기초’영역에서 주가 되어 연구되었다.

‘학술커뮤니케이션’ 주제 중에서는 오픈 액세스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2004년, 2011년부터 2013년도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2000년도에 국외에서의 Public Library of Science 이후 다양한 오픈 액세스 운동과 선언들이 나타나고 (최재황, 조현양, 2005) 2009년 국내에서 오픈 액세스 사업이 시작되면서(신은정, 2011) 대학도서관에서의 오픈 액세스 관심 및 적용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4.3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유형에는 역사적 연구, 면접조사, 질문지 조사, 관찰조사, 실험연구, 계량 서지학, 델파이 방법, 내용분석법, 사례연구, 트랜잭션 로그 분석법 그리고 평가적 연구방법이 있다 (이두영, 김성희, 이명희, 1997).

대학도서관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연도별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된 연구방법 전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32건 중 질문지 조사가 112건(33.7%), 사례조사가 40건(12.0%), 면접조사가 50건(15.1%) 그리고 기타 방법이 132건(39.8%)으로 조사되었다. 질문지 조사는 ‘도서

관 경영’, ‘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정보학’ 영역 중 ‘이용연구’를 위하여 이용자와 사서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조사는 대학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나 홍보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즉, 이 역시 ‘도서관 경영’에서의 ‘홍보 및 마케팅’이나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면접조사는 ‘도서관 경영’ 영역에서의 ‘조직관리’에서 사서와 그 이상의 직급 대상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와 ‘정보학’에서의 ‘이용연구’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방법 조사 결과, 대학도서관 연구는 주로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몇몇 대학도서관의 의견과 사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평가적 방법을 토대로 기존의 경영·서비스 개선이나 새로운 경영·서비스를 모색해보려는 연구가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4.4 대학도서관 학제별 연구 대상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대학도서관 연구를 4년제, 2년제 그리고 기타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조사하였다. 기타 도서관에 포함시킨 경우는, 4년제, 2년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반적인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선이나 이론적 내용, 대학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이버 대학교 도서관 등이다.

다음 <표 3>은 대학도서관 학제별 연구 대상을 연도별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조사결과, 4년제 대상 대학도서관 연구가 총 332건 중 244건(73.5%)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대학도서관이

〈표 3〉 대학도서관 학제별 연구 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4년제	14	14	10	14	16	15	16	20	16	16	22	16	18	25	12	244	73.5
2년제	0	0	0	0	0	1	2	1	1	0	0	1	0	0	0	6	1.8
기타	6	7	10	4	5	5	7	7	6	4	2	8	5	3	3	82	24.7
합계	20	21	20	18	21	21	25	28	23	20	24	25	23	28	15	332	100

〈표 4〉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1인					공동								기타	계
	교수	사서	강사	대학 원생	연구 원	교수/ 교수	교수/ 사서	교수/ 강사	교수/ 연구원	교수/대 학원생	사서/ 사서	사서/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i>136</i>	<i>35</i>	<i>14</i>	3	10	<i>19</i>	<i>53</i>	8	16	<i>27</i>	2	2	2		
비율	<i>41</i>	<i>10.5</i>	<i>4.2</i>	0.9	3.0	<i>5.7</i>	<i>16</i>	2.4	4.8	<i>8.1</i>	0.6	0.6	0.6	1.5	100

82건(24.7%), 마지막으로 2년제 대학도서관이 6건(1.8%)을 차지하였다. 4년제 대학도서관과 그 외 2년제 대학도서관 그리고 기타 대학도서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도서관과 기타 대학도서관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2년제 대학도서관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도 있으며 연구가 진행되었어도 한 해 2건에 불과하다. 4년제 대학도서관 수가 많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도서관 수가 2년제 대학도서관 수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³⁾ 대학도서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년제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2년제 대학도서관도 이에 적합한 서비스 및 기타 사항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련 방안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는 있다.

4.5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도별 연구자별 분포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연구자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는 1인 연구인 경우에는 교수(136건, 41%), 사서(35건, 10.5%), 강사(14건, 4.2%) 순으로,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교수/사서(53건, 16%), 교수/대학원생(27건, 8.1%), 교수/교수(19건,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제영, 박진희(2011)가 조사한 관종별 도서관 현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와 유사하다. 공동 연구에서 교수/사서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계에서의 연구자와 실제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 2014년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국공립 4년제 대학도서관 수는 286건, 전문대학교 도서관 수는 140건.

1인 연구에서는 교수가 월등한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여전히 4개 학회지를 통한 연구발표는 교수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의 주요 4개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대학도서관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연구 건수를 다른 유형별 도서관 연구 건수와 비교하였다.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학, 국가, 공공, 학교, 전문, 특수 그리고 기타 도서관의 총 연구 건수는 1,023건이며 이 중 대학도서관 연구 건수는 332건(32.5%)으로 공공도서관 연구 건수인 418건(40.9%)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대상 연구의 관심주제는 총 332건 중 95건(28.6%)인 '도서관 경영', 87건(26.2%)인 '정보학', 76건(22.9%)인 '도서관 서비스', 31건(9.3%)인 '문헌정보학 기초', 21건(6.3%)인 '도서관 체제', 12건(3.6%)인 '자료조직', 6건(1.8%)인 '도서관 건물 및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4건(1.2%)인 '기록관리학'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하위주제 및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기초'에서는 '도서관법/저작권법', '사서직'에 관

한 연구, '도서관 체제'에서는 '도서관 및 정보 정책', '도서관 협동/자원공유'에 관한 연구, '도서관 경영'에서는 '경영 기법/전략', '도서관 기획/활성화', '도서관 평가', '장서개발/정책', '장서관리 일반', '조직일반', '조직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홍보/마케팅' 연구, '도서관 서비스'에서는 '정보서비스 일반',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연구, '정보학'에서는 '학술커뮤니케이션', '이용연구 일반', '이용자 인식/요구', '정보이용행태', '웹사이트 비교/평가', '웹사이트 설계/구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점점 연구영역이 감소하고 있는 '자료조직'에서는 '메타데이터', '온라인열람용 목록', '편목 일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분류(도서 기호, 인터넷자원 분류 예외)', '서지통정', '주제 분석' 그리고 '편목' 중 'MARC, 고서편목'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 중 '도서관 경영'에서의 '경영 기법/전략', '도서관 평가', '장서관리 일반', '도서관 서비스'에서의 '정보서비스 일반',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그리고 '정보학'에서의 '이용연구 일반', '이용자 인식/요구', '정보이용행태'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대학도서관 연구에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을 조사하였다. 결과, 총 332건 중 질문지 조사 112건(33.7%), 사례조사 40건(12.0%), 면접조사 50건(15.1%) 그리고 기타 방법이 132건(39.8%)으로 조사되었다. 질문지 조사는 '도서관 경영', '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정보학' 영역 중 '이용연구'를 위하여 이용자와 사서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조사는 대학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나 홍보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즉, 이 역시 '도서관 경영'에서

의 '홍보 및 마케팅'이나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면접조사는 '도서관 경영' 영역에서의 '조직관리'에서 사서와 그 이상의 직급 대상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와 '정보학'에서의 '이용연구'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방법 조사 결과, 대학도서관 연구는 주로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몇몇 대학도서관의 의견과 사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평가적 방법을 토대로 기존의 경영·서비스 개선이나 새로운 경영·서비스를 모색해 보려는 연구가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 연구의 학제별 연구 대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332건 중 4년제 대학도서관이 244건(73.5%)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대학도서관이 82건(24.7%), 마지막으로 2년제 대학도서관이 6건(1.8%)을 차지하였다. 4년제 대학도서관 수가 많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도서관 수가 2년제 대학도서관 수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학도서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년제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2년제 대학도서관도 이에 적합한 서비스 및 기타 사항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련 방안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는 있다.

넷째,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학도서관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는 1인 연구인 경우에는 교수(136건, 41%), 사서(35건, 10.5%), 강사(14건, 4.2%) 순으로,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교수/사서(53건, 16%), 교수/대학원생(27건, 8.1%), 교수/교수(19건, 5.7%)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 연구에서

교수/사서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계에서의 연구자와 실제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연구에서는 교수가 월등한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여전히 4개 학회지를 통한 연구발표는 교수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도서관으로 관심 주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관심 주제 파악을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동향을 조사 및 분석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학도서관 연구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대상의 연구동향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대학도서관의 관심 주제와 이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학제별 대학도서관 연구 추이 그리고 사서 및 교수 등의 대학도서관 연구를 파악해봄으로써 연구동향 중 그 주된 내용의 조사 및 분석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년도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더 많은 연구건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년도별 관심 주제의 변화를 다룬 연구 그리고 연구를 통해 대학도서관에 제시된 방안 및 서비스 유형과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외국 대학도서관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용근 (2003).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297-315.
- 신은정 (2011). 디지털 학술정보의 공유와 활용, 오픈 액세스. Law & Technology, 7(4), 148-160.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379>
- 윤정옥 (2004). 대학도서관 편목 업무 외주의 동향과 논쟁.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119-136. <http://dx.doi.org/10.4275/KSLIS.2004.38.2.119>
- 윤희운 (2001). 대학도서관 경영개혁의 동향과 반추: 조직의 통합과 팀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33-51.
- 윤희운 (2011). 대학도서관기준의 동향분석과 개정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5-28.
- 이두영, 김성희, 이명희 (1997).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장덕현 (200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37-60.
-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1.
- 조인숙 (1995).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성과의 활용실태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2(2), 193-212.
- 최재황, 조현향 (2005). 오픈 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대응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2(3), 307-326.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307>
- 한국도서관협회 (2014).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Chang, Duk Hyun (2002). User education in academic libraries: Research trends and issu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1), 37-60.
- Cho, In Sook (1995). Analysis of practical utilization of research outputs i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2(2), 193-212.
- Choi, Jae Hwang, & Cho, Hyun Yang (2005). The recent trends of open access movements and the ways to help the cause by academic stakehold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07-326.
- Chung, Jae Young, & Park, Jin Hee (2011).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71-191.

- Kim, Young-Gun (2003). Practical issues faced by university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2), 297-315.
- Oh, Se 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 Shin, Eun Jeong (2011). The sharing and use of digital scientific information, and open access. *Law & Technology*, 7(4), 148-160.
- Yoon, Cheong Ok (2004). The recent trends and controversy over outsourcing of cataloging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119-136.
- Yoon, Hee Yoon (2001). On the trends and ruminations of managerial reform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1), 33-51.
- Yoon, Hee Yoon (2011). Trends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standard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5-28.